

첫째 주, 소그룹 모임

제목: 어느날 갑자기

찬양: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송가 543

성경본문 읽기: 욥기 1:6-12

여는 질문

고난은 예고 없이 찾아 옵니다. 미리 알 수만 있다면 최소한 마음의 준비라도 할 수 있을테지만 고난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시간에 문득 우리를 방문합니다.

누구나 과거에 한번쯤을 해보았을 재미있는 상상으로 모임을 시작해봅시다. 만일 당신에게 미래를 미리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당신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겠습니까? 당신이 다가올 미래의 불행을 알 수 있다면 오늘의 당신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본문이해

언제 인지도 모를 태고적에 하늘에서 생긴일입니다. 하늘에서 어전회의가 열렸습니다. 임금님 앞에 신하들이 도열해 서있듯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서있고 마치 오랜 여행에서 돌아 온 듯이 보이는 사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사탄과 허물없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혹시 욥이라는 사람을 만나 보았냐고 묻고는 이 세상에 욥처럼 의로운 사람이 없다고 자랑합니다.

그러자 사탄은 아무런 이유 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냐고 되묻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욥을 유별나게 축복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욥에게 주어진 축복을 빼앗는다면 그는 분명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생명외에는 모든 것을 빼앗아가도록 허락합니다. 그리하여 욥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열 명의 자녀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한 순간에 잃어 버립니다. 가장 복받은 인생에서 가장 저주받은 인생으로 전락했습니다.

인과응보, 사필귀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거기에 따른 응분의 댓가가 따른 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체험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고, 부자는 더욱 부유해 집니다. 힘있는 사람은 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불의가 오히려 정의의 이름으로 둔갑하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욥의 이야기는 선하고 의로운 자에게 이유없는 고난이 닥친 이유에 대해 질문합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는 마치 하나님이 의로운 욥의 불행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오해될수가 있습니다. 그런 오해는 성경이 주장하는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왜곡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불행과 고통을 놓고 사탄과 거래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천상에서 벌어진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는 인간의 문학적 상상력의 산물입니다. 하나님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신비의 영역을 이야기와 자유로운 상상력을 통해 인간 스스로 위안과 지혜, 통찰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말씀 속으로

1. 욥은 어떤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1-3 절) **우스땅에 살았던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자녀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그는 아들 일곱과 딸 셋 그리고 수많은 가축을 소유하였습니다.**
2. 욥이 자신과 가족의 성결을 위해 하였던 하나의 예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5 절) **자녀들이 생일잔치를 벌이고 나면 그들을 위하여 번제를 드려 행어나 자녀들이 지난 일년동안 범죄하였을 지도 모를 죄악에서 그들을 성결케 하였습니다.**
3. 사탄이 하나님과 나눈 대화와 (욥기 9-10 절) 창세기에서 하와에게 한 말은(창 3:1-5) 사탄의 어떤 속성을 보여줍니까? **창세기에서 금지된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을 명령을 어겨도 괜찮다고 하와에게 말한 사탄은 욥기에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인간을 이간질하는 일이고 불신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삶 속으로

1.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는 당신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십시오.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대화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소중한 생명을 놓고 사탄과 재미삼아 내기를 하는것 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인간의 고통을 허락하는 장면 역시 고통의 당사자인**

인간의 입장에서는 아주 불쾌하기 짝이 없는 장면입니다. 소그룹 멤버들과 허심탄회하게 각자가 느낀 기분을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욕기에 등장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이해하는 전통적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게 다르며 우리는 욕기의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정답을 이끌어 내려고 애쓰지 말고 질문을 나누는 것에 만족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 질문은 우리 스스로 자신의 신앙여정을 통해 계속 씨름해야 할 질문입니다.

2. 당신은 이 세상이 어떤 때에 불공평하다고 느끼니까? 각자의 삶 속에서 경험한 것을 나누십시오. 다만 너무 길지 않도록, 또한 지나치게 정치적인 논의들로 인해 소그룹내에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암송구절

이 모든 일에 욕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22 절)

자녀와의 나눔

자녀들은 어떤 경우에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지 또한 어떻게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지 진지하게 대화해 보십시오.

삶의 나눔과 나오는 기도

함께 지난 한주간의 삶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각자의 기도제목을 나눕니다. 인도자나 자원자가 대표로 기도할 수도 있고 돌아가면서 짧게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마무리는 주기도문으로 함께 합니다.

둘째 주, 소그룹 모임

제목: 한 그루의 나무에도 희망이

찬양: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송가 95 장

성경본문 읽기: 욕기 14:1-15

여는 질문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일, 불교에서는 인간이 반드시 겪어야 할 네 가지 고통을 생로병사라고 말합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까?

인생을 고향의 바다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인생은 고통과 절망의 조건들로 가득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을 바라봅니다. 소그룹 멤버들과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당신은 어떤 순간에 기쁨과 희망을 느끼니까?

본문 이해

욥기 14 장은 인간의 삶과 희망 대한 비극적이고도 처절하고 아름다운 묘사입니다. 인간의 삶은 한 송이 꽃과 같아서 피었다가도 정해진 시간이 되면 시들고 맙니다.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그 어느 누구도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진 것 전부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토록 짧은 인생이나마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가면 좋으련만 인간의 삶은 온갖 괴로움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여러가지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이별에 아파하며, 근심으로 불면의 밤을 지새웁니다.

욥은 고통가운데서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한 그루의 나무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송두리때 베어져도 다시 움이 돌아 나고 그 가지가 끊임없이 자라나고, 그루터기가 흙에 묻혀도 물이 공급되면 다시 살아납니다. 비록 현재는 자신이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가면 다시 좋은 때가 올거라고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당신은 이 고난의 때가 지나면 어떤 미래가 오리라고 희망하십니까? 당신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말씀 속으로

1. 욥은 인간의 삶의 현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1 절, 5 절) 인생은 짧고 걱정으로 가득차 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수명을 늘리지도 줄이지도 못한다.
2. 욥이 한 그루의 나무에게서 본 희망은 무엇입니까? (7 절) 나무는 비록 도끼에 찍힐 지라도 다시 싹이 나고 생명이 끊이지 않는다. 잠언 1 장의 물가의 심기운 나무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 속으로.

자신의 삶의 고난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서로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나눌수 있는 만큼만 나누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2. 당신은 이 고난의 때가 지나면 어떤 미래가 오리라고 희망하십니까?
3. 당신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암송구절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15 절)

자녀와의 나눔

자녀들에게 부모가 경험한 어려웠던 순간들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면하고 축복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 소그룹 모임

제목: 암흑같은 세상

찬양: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찬송가 263 장

성경본문 읽기: 욥기 24:1-20

여는 질문

개인적인 아픔과 상실에 대해 주목하던 욥은 비로서 자신에게 일어난 비극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고난을 통해 욥이 새롭게 발견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때문에 타인의 아픔을 바라보지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는 둔감했던 경험이 있었는지 서로 이야기 해봅시다.

본문이해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옴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자신을 바라보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가 본 세상은 빛이 실종된 세상이었습니다. 힘있는 자들에 의해 가난한 사람들이 억압받는 세상이었습니다. 고아들이 노예로 팔려가고 힘없고 가난한 과부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며,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것이 없어 거리로 내몰리며 비를 피할 곳이 없어 바위 틈에서 잠을 청합니다. 성읍은 온통 상처받은 사람들과 죽어가는 사람들의 아우성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이러한 불의한 세상의 현실을 목격한 옴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악인들은 잠시 번영하는듯 하지만 결국에는 풀처럼 시들어 사라지고 말것이라 말합니다.

24 장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사실은 옴의 개인적 고통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고난이 개인의 고난으로 머물때 우리는 고난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 어렵습니다. 개인의 고난은 이웃의 아픔에 눈을 뜨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 불의한 사회적 현실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행동으로 이끄십니다. 개인의고난의 경험은 사회적 실천으로 확장될때 더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말씀 속으로

1. 옴이 바라본 세상은 어떤 모습입니까? (2-10 절) 불의한 자가 약한 자를 착취하고 학대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본문 속에 주어진 사례들을 읽으며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과 같은지, 아니면 다른지 비교해 보세요.
2. 옴은 악인의 종말이 어떨것이라고 말합니까? (17-20 절) 악인들은 죄의식 속에서 어둠속에 숨어 살며 하나님께 저주받는 비참한 인생을 살것이라고 말합니다.

삶 속으로

1.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당신은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해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크리스찬의 자세라고 생각하십니까?

암송구절

악인들은 잠시 번영하다가 곧 사라지고, 풀처럼 마르고 시들며, 곡식 이삭처럼 잘리는 법이다.
(24 절)

자녀와의 나눔

자녀들의 삶 주변에서 벌어지는 옳지 못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사회적 불의에 항거한 기독교 신앙인들에 대해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 해봅시다.

넷째 주, 소그룹 모임

제목: 고난이 주는 유익

찬양: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가 425

성경본문 읽기: 욥기 23

여는 질문

오늘은 욥기의 전반적인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 몇 가지 중요한 질문들을 함께 나누며 욥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한 달 동안 각자의 삶속에서 욥기묵상을 통해 느끼고 새롭게 배운것들이 있는지 서로 나누어 봅시다.

본문이해

삶의 토대가 붕괴될 때

누구에게나 시련은 찾아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온갖 어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시험에 낙방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직장을 잃거나 파산에 직면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기도 합니다. 욥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한 순간에 잃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떠 받치고 있던 삶의 모든 기초와 토대가 완전히 붕괴된 것입니다.

함께 나누기 1) 당신의 삶속에 경험한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을 기억해 봅시다. 그리고 함께 나누어 봅시다.

욥과 친구들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당한 욥에게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안타깝게도 욥은 그의 가까운 벗들에게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욥의 아픔과 고통만 더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욥이 당하는 고난이 욥의 불의함때문이라고 정죄하였습니다.

함께 나누기 2) 당신이 힘들고 괴로울때 당신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합니까? 당신은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얻었습니까?

고난이 주는 유익

욥은 자신이 현재 당하는 고난을 통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순금처럼 만드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욥의 소망이며 고난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고난을 원치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가진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역설적인 지혜입니다.

함께 나누기 3) 각자의 삶의 고난 가운데 배우고 깨달은 것들이 있다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고난이 자신에게 유익했던 기억이 있는지, 있었다면 어떤 것인지 나누어 봅시다.**

말씀 속으로

1. 로마서 5:1-5 에서 바울은 고난의 유익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가져온다** 말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주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은 고난이 우리를 성숙시키고 강하게 단련한다는 것입니다.**

2. 바울이 고난을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후 12:9-10)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강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약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고난이 가져다 주는 축복중에 하나입니다.**

삶 속으로

고난가운데 있는 가족이나 친구, 혹은 교우들을 만날때 당신은 어떻게 그들을 위로 하십니까?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 친구들이 저지른 실수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왜 그들의 권면은 욥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였는지, 우리는 과연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는지**

암송구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
(10 절)

자녀와의 나눔

고난과 역경을 극복한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녀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세계역사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보다는 가까운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실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우리와 다른 종류의 사람처럼 보이는 위인들의 이야기는 때로 우리들에게 감흥을 주지 못합니다.